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
2. <시간>으로 보면, ‘시간’ 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때>로 보면, ‘인생’ 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
3. 집을 짓는다든지, 먼 길을 간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 이 많이 들어간다. 고로, 이러한 것을 볼 때 시간이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하라는 것이다.
4. <주가 오는 것>도 사람들은 2000년에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때>를 맞추기 위해 20년 전에 미리 서둘러서 하셨다. 그리고 성장기, 연단 기간까지 치면 40년 전에 시작하셨다. 그래야 “그가 ‘인(人)구름’ 을 만들어서 타고 온다.”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먼저 와서 인(人)구름을 만들고서, 나타나기는 2000년도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상 어떤 것을 하려면, 그 전에 미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때’ 가 맞다.
5. 사람들을 보면, 미리부터 하지 않고 ‘그 날, 그 시간’ 에 뛰고 달린다. 사람은 ‘시계’ 가 아니니, 미리부터 해야 된다.
6. 늦기 전에 행해야 된다.
7. <인생>으로 보면,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힘이 없

어지기 전에, 더 눈이 안 보이기 전에, 더 귀가 안 들리기 전에 해라.

8.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요동칠 때 해라.

9. <때>가 되면, 땀돌 소리가 작아진다. 이 말은 ‘입에서 씹는 소리가 작아진다.’ 함이다.

10. <때>가 되면 창문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때>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들리는 것도 가늘게 들린다.’ 함이다.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라.

11. 어릴 때 열심히 뛰고 달리며 건강하게 만든 몸도 ‘지금’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 상실된다. 이와 같이 젊었을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고 달린 것들을 지금 안 하면, 그동안 한 것이 소모되어 버린다.

12. <신앙>도 계속해야 유지된다.

13. 서둘러 ‘때’를 지키고 행하여라. 늦기 전에 해라.

14. 나이 먹으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뇌의 기억력도 없어진다. 고로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나이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입만 살아 있고, <있>만 살아서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이다. 고로 지금 운동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구상해서 행하고, 교회마다 부서마다 개인마다 시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말씀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연구도 하면서 계속 행해야 된다.

15. 어떻게 주는 밥만 먹고 사느냐? <신앙> 안에서도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알아서 열심히 뛰고 달려라. 나이 먹은 다음에는 더 못 한다. 젊었을 때 서둘러서 할 일들을 척척하여라.

16. <주>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알고 멋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해 나가야 지겹지 않고, 계속 새로워진다.

17. 어떤 사람은 새벽예배를 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지?’ 한다. <새벽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힘들고 고달프다. 잠을 잘수록 더 피곤하고 고달픈 것이다. 왜? <영적인 모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차>는 모터가 돌아가야 쉽게 달릴 수 있는 것이다.

18.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행하여라.

19.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자들도, 앞날에 비해서 지금이 ‘젊을 때’ 다. 젊을 때, 청청할 때 해야 된다.

20.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말씀 읽을 때>는 말씀 읽고, <말씀 실천할 때>는 실천하여라.

21. 가만히 있으면, 자꾸 몸이 굳고 뇌가 굳는다. 고로 지금 계속해서 더 뛰는 것이다.

22. 완전하게 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

23. 가령 10시에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하면, 10시 전에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된다. - 이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10시에 와서는 늦다.

24. <미리>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

25. 일은 <시간> 때문에 못 하기도 한다. <시간>만 있으면 기술이 부족해도 배워서라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실수하면 못 하는 것이다.

26. <승리하는 때, 성공하는 때>가 있다. 이때에는 ‘시간’이 주름 잡고 있다.

27.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 <하늘에 시간>을 많이 줘야 승리할 수 있다.

28. <시간>을 뺏어서 ‘말씀’을 배워라.

29. <시간의 승리>는 ‘삶의 승리’다. ‘생활의 승리’다.

30. <시간의 승리>를 해야 돈도 벌고, 상대도 이긴다.

31.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이긴다. 이를 비유로 들어 말하면,

〈사탄〉은 ‘6시간’ 밖에 못 하고, 〈우리〉는 ‘7시간’ 을 한다고 하자. 끝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더 많아서 결국 뚜껑을 덮는 일을 한다. 이같이 〈끝까지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이긴다.

32. 모든 일을 보면, ‘시간’ 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한 것이 많다.

33. 미리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 누리지도 못한다.

34. 〈시간〉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와서 “오늘 나랑 같이 놀러가자. 그리고 외국에도 가자.” 해도 못 가는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라는 것이다.

35. 선생이 영적 세계를 보고, ‘지금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음’ 을 깨달았다. 무엇을 놓쳤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행한 자〉는 안다. 〈새 시대를 맞고, 주를 맞은 것〉도 맞은 자들만 알지, 그러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 〈새 시대 주관권〉에 와야 그때 아는 것이다. 〈잠언을 깨달을 때〉도 그 선에 올라가야 깨닫지, 그냥은 못 깨닫는 것이다. 이같이 ‘행한 자’ 만 안다는 것이다.

36. 언젠가는 자기 앞에 황금 같은 복이 와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올 때가 있으리라.

37. 〈시간〉은 ‘백지수표’ 다.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

38. 가령 〈돈〉을 가지면, ‘빌딩’ 도 살 수 있고, ‘별장’ 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다. <돈>을 가지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39. <시간>을 많이 들여야 ‘대가’가 온다. 그냥은 대가가 안 온다. 왜?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다.

40. 선생은 ‘시간의 승리’를 했다. 어떻게? <새벽 시간>을 켜고, 일찍 15세 때부터 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 사람들이 비웃고 말렸어도 무조건 시간을 잡고 켜다. 결국 승리를 하고 말았다. <시간의 승리>는 ‘실존의 승리’를 가지고 왔다.

41. 미리미리 하고, 늦기 전에 해라. 겨울이 와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 달릴 수가 없다.